

치열했던 항쟁의 흔적 사라져... 마을 절반이 폐가

5·18 44주년 - 태봉마을의 비극

<2>방치된 '오월마을'

지역방위군 편성 계엄군에 저항 주민 절반 경찰 고문 등 시달려 원주민 '마음의 상처' 안고 이주 '안내 조형물' 방치...제기능 못해

최근 찾은 광주 동구 소태동 태봉마을. 좁은 골목길을 따라 마을 안으로 들어가니 흉물스러운 폐가가 눈에 띄었다. 녹슨 철문, 무너진 지붕, 거미줄 처진 채 깨진 창문. 그 너머로 보이는 집 내부는 오랜 기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가구 위로 먼지가 두껍게 쌓여있었다.

그나마 육안으로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곳들은 사정이 나왔다. 사방으로 잡초가 무성해 가까이 다가가기조차 어려운 집들도 있었다. 문 앞에 널브러진 잡동사니와 고지서가 수북이 꽂힌 우편함만이 예전에 사람이 머물렀던 곳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한 집 건너 한 집꼴로 폐가인 태봉마을의 현재 모습은 1980년 5월 '비극'의 연장선상에 있다.

5·18민중화운동 당시 100여 가구에 달했던 태봉마을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84명(인근 주민 포함)으로 꾸려진 지역방위군을 편성해 계엄군에 저항했다. 예비군 소대장이었던 문장우씨를 필두로 김춘국·김복수씨 등이 방위대를 이끌었다. 이들은 계엄군과 총격전을 벌이고, 민간인으로 위장한 계엄군을 생포해 '태봉마을 철탑 밑에 군 장비가 있다'는 진술을 받아내

는 등 중추적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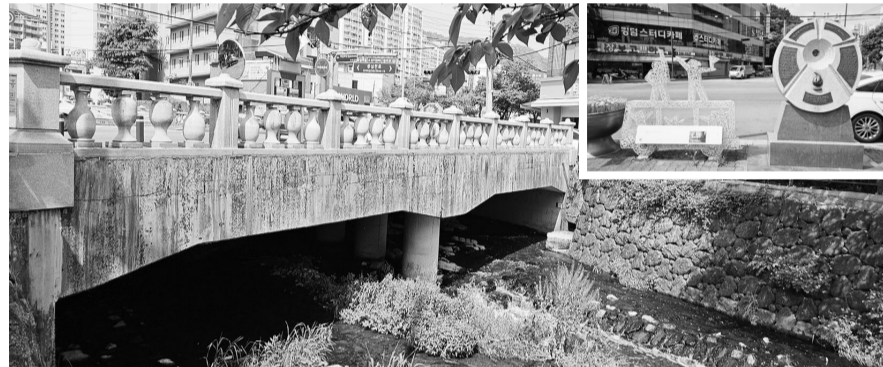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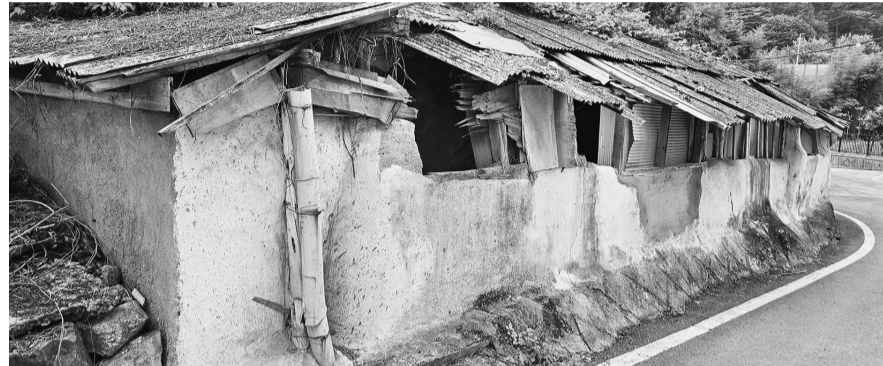
그러나 5·18 이후 마을에 남은 것은 '갈등' 뿐이었다. 고춧가루 물을 먹이거나 거꾸로 매다는 경찰의 살인적인 고문은 서로가 가담자라며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다. 당시 연행돼 고초를 겪은 주민만 40여명으로 추정된다.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그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2016년 동구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나 일회성에 그쳤다. 고령의 노인이 된 이들은 마음의 상처를 안은 채 마을에 폐가만 두고 떠났다. 지금 태봉마을에는 건너편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를 제외하고 25가구의 새로운 주민들이 산다.

마을 입구에 설치된 '오월마을 안내조형물'만 치열한 항쟁이 펼쳐졌던 태봉마을을 기억하게 해주고 있다. 조형물은 직사각형 모양의 초록색 안내판 2개로 이뤄져 있다. 안내판 한쪽에는 '태봉마을'이 큼지막하게 새겨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태봉마을의 5·18 투쟁 이야기가 적혀있다. 이 조형물 역시 과거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세워졌다.

태봉마을의 하나뿐인 오월 상징물마저 주위의 외면 속에 방치되고 있다. 안내판에 유리를 덧대 그 위에 스티커로 글자를 붙였는데, 비나 눈 등에 젖어 글자가 심하게 뒤뜰려 있었다. 오물 등이 잔뜩 묻어있는 탓에 한 문단은 제대로 읽을 수조차 없는 상태.

이곳을 지나던 한 주민은 "그저 마을이



태봉마을 입구에 설치된 안내판에 글씨가 뒤뜰려있고(위), 폐가가 방치돼 있다.(중간) 배고픈다리 조형물(작은사진)에는 QR코드가 오류가 나 보완이 시급하다.(아래)

를표인 줄 알지 안내판의 글자까지 들여다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조형물이 초록색인데 나뭇더미에 가려져 있어 눈에 잘 띄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제2순환도로가 개통되기 전 태봉마을에 포함됐던 '배고픈다리(홍림교)' 역시 관리 상태가 아쉬웠다. 이곳은 마을 주민들이 지역방위 활동을 활발하게 벌였던

장소다. 홍림교는 다리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사람 배가 훑혀진 모양'과 같다고 해 배고픈다리로 이름 붙여졌다. 방위대가 5월22일 조선대 뒷산에 숨어있던 계엄군을 30여분간 총격전을 벌여 물리친 곳으로 5·18 사적지 13호로 지정돼 있기도 하다.

배고픈다리에 설치된 5·18 표지석 옆에는 '5·18 당시 젊은이들이 주축이 돼 시민군을 편성하고, 이 다리를 중심으로 방어망을 구축해 물 쉴 틈 없는 경계를 폈다'는 내용의 안내판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러나 안내판 속 글자와 사진 등은 세월이 지나 색이 바래져 희미했다. 배고픈다리의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시켜주는 QR코드는 오류였다. 휴대폰 카메라에 QR코드를 인식시켰지만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문구만 떴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사적지 소개란으로 연결되는 QR코드인데, 사이트 링크가 수정되면서 오류가 난 것"이라며 "사적지를 방문하는 분들이 QR코드를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게 기존 플라스틱이 아닌 코팅 스티커 형태로라도 QR코드를 임시 설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태봉마을과 배고픈다리는 5·18로 이어져 있다. 시간이 지나며 도로가 확장되면서 현재 다리에 총탄 흔적 등은 남아있지 않다"며 "태봉마을과 관련한 기록이 거의 없다. 원주민들이 대거 떠나는 등 애로사항이 많아 마을공동체도 형성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다시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광주비 기자 jubik.kang@jnilbo.com

테이저건 맞은 뒤 돌연사 50대 살인미수범 '급성심장사 고려'

전남대병원 법의학연구소 소견서 국과수 종합검사 3~4개월 소요

경찰 진압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맞고 몇시간 뒤 숨진 살인미수범의 사망 원인은 '급성심장사'라는 1차 부검 소견이 나

왔다. 7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24일 숨진 A씨의 사인으로 '외부 자극에 따른 급성심장사가 우선 고려된다'는 1차 소견서를 제출했다.

급성심장사는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

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해 1시간 내 의식소실과 함께 외부 원인이 없이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검의는 소견서를 통해 사망 원인은 '미상'으로 밝혀 A씨의 정확한 사인은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추가적인 분석

을 통해 알 수 있을 전망이다.

국과수는 A씨에 대한 조직·약물검사 등 추가 정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 규명할 예정이다. 관련 검사는 3~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5시5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아파트에서 30대 아들 B씨를 흉기로 찔렀다.

현장에 도착한 지구대 경찰관은 저항하는 A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 체포했

다.

오후 6시35분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던 A씨는 갑작스럽게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7시31분 끝내 숨졌다.

A씨에 대한 국과수의 종합 분석 결과 테이저건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광주·전남에서는 테이저건에 의한 첫 사망 사례가 된다. 정성현 기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